

# 아픔과 기쁨

Pain and Joy

마태복음 2:16-18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12월 16일 설교

<sup>16</sup>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헬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sup>17</sup>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sup>18</sup>‘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 아픔과 충격

사실 오늘은 좀 낭만적인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온 이야기 아니면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별과 목동이 함께 나오니까 알폰스 도데의 ‘별’ 이야기도 좀 하면서 성탄절의 하나님은 분위기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일어난 끔찍한 일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별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한 시간 거립니다. 우리와 같은 페어필드 카운티에 속한 뉴타운의 한 초등학교에서 금요일인 그저께 오전에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 죽는 일은 워낙 자주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걸 그런 게 아니라 수십 명을 죽이는 대학살이었습니다. 저항할 능력도 없는, 아니, 아직 아무 것도 모르는 일학년 아이들을, 스무 명이나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교사와 직원도 몇 사람 죽였고 범인은 자살을 해 모두 스물여덟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이들 나이를 보니 여섯 살짜리가 열여섯 명, 일곱 살이 네 명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제 인생을 막 시작한 아이들입니다. 앞날이 무한히 펼쳐져 있던 아이들이 한 순간 꺾여 버렸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은 자라지도 못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부모가 되지도 못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부모의 기쁨도 꿈도 사라졌습니다. 아픔만 남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대림절 기간에 일어났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뉴타운 중심가에는 큼직한 크리스마스트리가 한 주 전부터 빛을 내고 있었고 사건이 나던 그 아침에도 아이들은 교실마다 모여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면서 선물은 뭘 받을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합니다.

## 이천년 전

성탄과 아동 학살, 이거 별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성탄의 기쁨 속에 이미 그런 비극이 담겨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하러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그 무렵 많은 갓난아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기 예수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 예수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인구로 계산해 스무 명 정도의 갓난아기가 살해를 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헤롯이 워낙 잔인한 사람이어서 이 정도로는 일반 역사에는 기록도 안 남았지만 성경은 이 학살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나셨다는 이 가슴 벅찬 이야기 속에 사람을 죽인 이야기, 그것도 갓난아기를, 수십 명이나 죽였다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굳이 포함시킨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얼마 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고 보는데 이들은 오래 전 제 나라에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특히 민수기에 나오는 예언 곧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 24:17). 그래서 어떤 현상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전에 없던 별이 유대 땅이 있는 서쪽 하늘에 나타났을 때 이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신 걸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점성술사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예물을 준비해 먼 곳까지 찾아온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니 수도 예루살렘에서 나실 거라고 본 건지, 아니면 거기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건지,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는지 물었습니다. 별 예언은 모세 오경에 있는 거라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베들레헬에서 나실 것이라 한 미가의 예언은 후대의 것이라 아직 몰랐던 모양입니다. 헤롯 왕궁이 발각 뒤집혔습니다. 유대인의 왕 헤롯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저도 모르는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

하니 그럴 만도 하지요. 그래서 헤롯이 제사장들과 성경학자들을 불러 물어보니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 예언되어 있었다 했습니다.

## 헤롯의 학살

제사장들과 성경학자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것만 가르쳐주고는 사라집니다. 관심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헤롯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왕궁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별이 언제쯤 나타났는지 자세하게 물어보고는 베들레헴으로 가 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 유대인의 왕을 만나거든 꼭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했습니다.

헤롯의 본 뜻은 뭐였습니까?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알려준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아기를 만나 경배한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했습니다. 요셉에게도 나타나 아이와 아이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육 마일, 십 킬로미터 조금 못 되는 거립니다. 걸어서 두 시간이면 됩니다. 헤롯이 아마 하루 이틀은 기다렸겠지요. 그러다가 박사들이 안 알려주고 그냥 갔다고 판단이 서자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았다’ 했는데 사실은 박사들이 헤롯의 꾀에 안 넘어간 거지요. 박사들을 속이려 하던 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해 막았습니다. 그러니 그 분노는 결국 유대인의 왕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한테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안 알려주고 그냥 가 버렸으니까 아예 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정말 태어났다면 분명 베들레헴에서 났을 겁니다. 헤롯이 제사장들보다 믿음이 좋지요? 또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 자세하게 알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주변에서 태어난 아이 가운데 넉넉잡고 두 살짜리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 버렸습니다.

## 예레미야의 예언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박사들이 진작 성경을 좀 읽어서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헤롯이 아무 것도 몰랐겠지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아기를 못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둘러댔더라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헤롯이 아이들을 학살한 이 사건으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성경에 라마가 여러 곳 있습니다만 아마도 라헬의 무덤 가까이 있는 라마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보다 자식을 늦게 그것도 요셉과 베나민 둘 밖에 못 낳았지만 이들 후손은 아주 번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 왕국의 중심 세력이 바로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는 많아졌지만 하나님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래서 별을 받아 나라마저 아시리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다는 건 그렇게 망해버린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렘 31:15).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이 이 장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 잘못을 용서하고 눈물을 씻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과정에 아직 아픔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누구보다 앞장 서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이들의 죄 때문에 어머니 라헬이 아파하고 눈물짓는 일이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들어있는 꼭 하나의 아픔입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도 되지만 사실은 그 사건, 그 아픔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마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에브라임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죄가 아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까지 와 방해합니다. 그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 예언의 성취

오늘 본문은 헤롯의 학살로 이 구절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오래 전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때 라헬의 후손의 죄 때문에 아픈 일이 있을 거라 하셨는데 그 아픔이 헤롯의 학살로 나타났습니다. 헤롯의 학살은 그렇게 예언하신 아픔이기도

하지만 뒤집어보면 하나님이 오래 전 약속하신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는 힘입니다. 죄가 그걸 휘두르면 우리가 다칩니다. 상처를 입고 아픔을 느낍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때리게 하고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죄 때문입니다. 오래 전에는 라헬의 후손이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실 때는 헤롯이 무고한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표합니다. 헤롯이 가진 욕심, 이기주의, 야망, 난폭함, 이런 걸 우리도 가졌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이 놀라운, 이 거룩한 일에도 개입해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평화로워야 할 메시아의 탄생이 죄 때문에 이렇게 피로 물들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아기 예수의 탄생까지 이렇게 피로 물들었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픔이 담겼습니다. 아기가 나셨기 때문에 아픔이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아픔 때문에 아기가 오셔야 했습니다. 아이의 탄생을 두고 일어난 헤롯의 끔찍한 학살은 아이가 정말 잘 태어나셨다, 정말 오셔야 될 분이 오셨다, 이 아기가 안 태어나셨더라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이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 희생의 뜻

아기 예수가 나신 그 날 여러 사람이 여러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가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제 왕 자리부터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애쓴 덕에 제가 죽은 다음에도 나라를 세 아들, 나중에는 손자에게까지, 잘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누리고 자손들에게 물려준 다음 어디로 갔는지 그건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요. 내 죄를 용서하고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분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헤롯은 그걸 활용할 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 한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별로 안 기다립니다. 왜요? 헤롯이 있으니까요. 이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했고 무너진 옛 성전도 지어 주고 해 따로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 해 놓고서도 아무런 관심도 안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렇게 예물까지 갖추고 한 달 가까이 걸어 찾아와 두루 알아본 끝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 절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 또 있습니다. 왕이 나셨다는 소식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목숨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 살 아래로 다 죽었으니 사는 게 뭔지 알기도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많은 부모가 어린 아들을 잃었습니다. 직접 죽는 것도 고통이지만 자식, 특히 어린 자식의 죽음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죽어가야 했던 아이들, 이유도 모르고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 이들의 아픔이 있기에 메시아가 꼭 필요했습니다.

## 대신 죽으심

헤롯의 칼에 죽어간 아이들은 대신 죽은 아이들입니다. 아기 예수를 대신하여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아기 예수의 부모가 겪을 아픔을 대신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셨기 때문에 간수들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손자 헤롯이 할아버지처럼 잔인하게 이들을 죽였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까닭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는 이 사람이 지었는데 죽기는 저 사람이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헤롯의 죄악이 온 인류의 죄를 대표하듯 오늘도 인간의 죄 때문에 상처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역시 어떤 점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아니 여기 있는 우리를 대신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저께 죽어간 스물여덟 명, 특히 아무 것도 모른 채 죽어간 스무 명의 아이들도 누군가를 대신해 죽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그 아이들보다 훨씬 죄를 많이 지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대신합니까? 본문에서는 헤롯의 칼에 죽은 이 아이들이 아기 예수를 대신하고, 이 아이의 부모가 아

기 예수의 부모 대신 고통을 받지만, 사실은 이 아이야말로 이렇게 죽어간 그 아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아이들뿐 아니라 그 아이들의 부모, 그렇게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한 헤롯,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데도 아무 관심조차 없었던 종교지도자들, 오늘 여기 모인 우리까지 모든 인류, 죄의 노예가 된 모든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 울며 뿌리는 씨

아기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그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오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 년 전 아기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되 눈물을 흘리며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이렇게 또 아픔을 나눕니다.

이 아픔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롬 8:32). 하나님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될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나고 괴롭지만 울면서도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곳에 아픔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곳에 뜻하지 않은 아픔이 늘 함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마귀의 발버둥이면서 참 좋은 것이 곧 울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스무 명의 꽃다운 생명이 갑자기 꺾어진 금요일 밤 뉴타운의 수백 명 주민이 한 교회에 모여 촛불을 켜 다음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스무 명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을 첫 번 크리스마스 때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금요일의 참극이 아니어도 우리가 사는 자리는 그렇게 답답함과 아픔이 늘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를 위해 구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올해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참극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 아픔에 동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지금 이웃 마을이 겪고 있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참 평화와 안식의 그 나라를 속히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